안식일에 온갖 것 다 하기

(마태복음 12:1~8)

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3.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안식일에 온갖 것 다 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안식일에 온갖 것 다 하기'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할머니나 부모님 세대에서는 주일날 외식을 하는 것조차 불경건하게 느끼는 분위기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러한 규정은 벌써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뒤로 다 철폐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온갖 것을 다 하는 날"로 정의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이 평일과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 의미대로 마음의 안식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앞서 본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는 온갖 일은 쉬는 중에 하는 일이 됩니다. 쉬는 중에 하는 행동은 놀이입니다. 즉 안식일이 지켜지는 삶은 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식일 바깥에서 하는 모든 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규정은 온갖 일들을 놀이처럼 기쁨을 발산하

는 방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봅니다. 우리가 일 년에 한 번씩 4~5일 간의 추석연휴를 보냅니다. 요즘은 추석 풍습도 많이 변했지만 전통적으로는 온 가족이 고향을 찾아가 부모님을 뵙습니다. 그런데 일 년 내내 추석연휴 중에 삶의 일을 해나간다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명절날 노동 때문에 싫다고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위로 아들 다섯이 있는 집안의 외동딸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더군다나 시댁 쪽에는 갈 곳이 없어서 추석 때는 항상 친정으로 옵니다. 모든 일은 올케들이 다 하고 연휴 내내 쉬다가는 모습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평생을 친정으로 돌아와 쉬는 외동딸의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까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삶은 이러한 명절의 모습처럼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생겨납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 샤바트(שבת)로써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 일을 중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는 이 광경을 더 자세히 표현하여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사회에는 안식일에 지켜야 될 39가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안식일에 모든 일을 그만두라고만 했지만 랍비들은 이를 더 세분화시켜서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 추수하는 것과 탈곡과 키질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밀을 잘랐으니 추수를 한 것이고, 비벼서 탈곡을 한 것이고, 입으로 불어서 키질을 한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들먹이며 예수님을 트집 잡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갈릴리 변방에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곳에도 회당이 있었기에 이러한 규정을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이 광경을 제자들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알았던 제자들이 멋대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던 중 제자들이 시장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께서 밀 이삭이라도 잘라서 먹어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합리화나 변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배고파하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던 바와 같습니다. 제자들 또한 규정을 모를 리 없었으나 스승이 허락하시니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트집에 대해 다윗과 제사장의 일화를 비유로 드시면서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강변을 하십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로써 승승장구하던 삶의 터전을 떠나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에 놉 땅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먹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하였습니다. 또 5절에서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성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의 취지는 창조 때의 첫 번째 안식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아담이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난 날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아담은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마주하는 동안에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곧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 문제가 생겨도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건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돈 문제가 생겨도 판단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창조 때의 순백의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하면 마음은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타락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있고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의 인간은 하나님을 지나쳐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마음을 보내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을 전제로 하고 안식일 규정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전 죄의 습성을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음은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안식일만이라도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의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가족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등과 같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 고민한다는 것은 마음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복음은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과 종교의 방향성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머물면서 찾는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천지의 주재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자한다면 먼저 마음이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

상에 대해 죽었음을 인정함으로써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 규정의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선택하신 장소이며, 이 지구 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전에 들어간 것을 마음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상태로 보셨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한 것도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상태로 보셨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안식일과 같이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이 만나는 상징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몸으로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규정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안식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39가지 규정은 더는 필요 없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합니다. 강을 건너기가 안식의 상태이고 배는 39가지의 안식일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헤매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강 건너에 도착했으면 배를 버려야만 합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하셨고 또 8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성전에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 마음을 성전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큰 분이셨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며 또한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안식의 상태를 이룬 상징적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적용해보자면 제자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밀밭 사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안식의 상태이기에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규정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밀밭에 들어가면 밀 이삭을 자르고 비벼서 입으로 훌훌 불어서 먹으면 됩니다. 이제 안식의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안식의 상태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시며 안식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서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생활화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한다는 것은 일 년 내내 추석명절을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의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시면서 바뀌게 된 인간 실존상황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기에 마음이 지나치기 쉬웠지만, 인간의 이웃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눈에 보이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 사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늘의 나의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추석명절처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추석연휴에 나흘을 쉬게 되었다고 해봅니다. 일을 마치고 바로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내려와서 잠을 푹 자고 일어나자 이제 나흘이 휴가로 남아있습니다. 바쁘게 도시생활을 하다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아침을 맞이하자 해방감과 아늑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자 마음은 다시 서울생활에 가까워집니다. 일 생각이 나서 조바심이 생기고 긴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아직도 나흘이나 휴가를 앞둔 안식의 마음을 평생 누리게끔 하신 것입니다. 다섯 올케가 모든 일을 다 하는 상황에서 풍요로운 추석연휴를 누리는 외동딸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휴 중에 하루 남겨놓은 심정도 되지 못한 채 아예 연휴가 없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안식을 얻기 위해 예배당을 찾아와도 복 받으려면 충성하고 봉사하라 등의 말로 강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부담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 생활에 대한 부담까지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가 아닙니다.

본문에 의거하여 말씀드리자면 복음은 평생을 안식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유지되는 추석연휴 첫날과 같은 마음으로 직장도 다니고 자녀도 키우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장 30절에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39가지의 규정에 얽매여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지 않고 머무르기 쉽도록 인간의 이웃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음이 삶의 영역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부담에 더해 종교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은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떠난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내 몸으로 살던 삶의 영역을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식입니다. 일 년 내내 일하다가 추석연휴 며칠 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일 년 내내 추석연휴와 같은 안식을 취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삶의 문제는 모두 하나님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놀이처럼 하게 될 것입니다. 추석에 모여서 천척들과 윷놀이 하고 담소도 나누고 영화를 보는 등 해야 하는 일이 있듯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놀이하듯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이 먼저이고 안식이 중심입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삶은 안식 뒤에 있는 부차적인 일입니다. 부부이기에 배우자가 우선이 아닙니다. 부모이기에 자녀가 우선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통째로 쥐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세상에 쫓기는 동안에는 수고하고 초조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할 수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마음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안식과 평강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도 명확하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의 사명이자 직업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부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이어지는 안식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뒤로는 평생 안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삶의 현장에서 바라봄으로써 마음이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일들은 놀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놀이로 변하는 기적을 평생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